

캠퍼스 대학생들의 동성애 문제 인식 상황과 대응 방안

김 정 우¹⁾

1. 들어가며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반대’ 시민단체에서는 2016년 10월 4일과 5일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라는 모임에서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으며,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는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에서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 아래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6일에는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에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있었다. 특히 ‘레즈비언’ 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후 일어난 일어서서, ‘커밍아웃’한 학생을 총학생회 임원으로 선출한 학교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분위기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1)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2) 이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비판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3) 서울대 기독교 대학생들이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및 서울대 인권가이드 라인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 기타 대학의 캠퍼스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캠퍼스 내에서의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수 및 기독교대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2.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서울대 총학생회가 2016년 9월 7일 발표한 ‘인권 가이드라인’ 과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반대의 표현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성적지향이 포함하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도 혐오폭력, 증오범죄,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대상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인권 가이드라인 제4조, 해설서 12면).

또한 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기해서 동성애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은 혐오발언으로서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인권 가이드라인 제8조, 해설서 15면). 학문 및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동성애에 대한 비판 및 반대의 견해를 외부로 공표하는 행위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1) 숭실대학교 법학박사, 백석 신학대학원 졸업(목사), 숭실대학교 겸임 교수.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권 가이드라인 제12조, 해설서 17면).

(1) 성적지향에 대한 비판·반대 금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명시했다(제2조). 인권 가이드라인은 “종교나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다른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혐오의 표출이나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제5조)”며 “이때 ‘폭력’은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2) 혐오폭력의 금지

제4조는 폭력과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 2항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언어적 폭력, 재산의 도난 및 손괴, 신체적 위해 및 그 위협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해설서』 12쪽에서 ‘혐오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혐오폭력은 ‘성적지향’, ‘지정 성별’ 및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다.” 동성애도 이른바 개인의 정체성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혐오폭력은 이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언어적 표출, 차별 및 혐오 확산 행위를 비롯한 절도, 손괴, 협박, 폭행 및 상해, 살인 등 실정법상 범죄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양태로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그 동기에 집중하여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해설서』 13쪽에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은 꾸준히 문제되었다”면서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가 올해 초 내건 신입생 환영 현수막이 찢어진 사건을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 동아리에 대한 배척과 혐오의 메시지를 전시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증오범죄”로 규정했다.

(3)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7조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해설서』 14쪽에서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은 개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의 발견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제”라며 “헌법 제10조 및 인격권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 또한 보호받는다”는 일반적인 설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정보의 보호가 특별히 언급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본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한편, 다른 구성원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아웃팅’이라고 한다. 성소수자에게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트랜스젠더-이성애중심적 사회의 압력이다.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은 개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의 발견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제일 것이다. 동의 없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의 공개 행위인 ‘아웃팅’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권리침해를 유발하는 것은 역시 이 사회적 기제이다. 구체적인 행위

양태의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아웃팅’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방법론은 가열찬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찬반양론의 어느 쪽에서도, 개인이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는 합의할 수 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가 보호받는다든 이 규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수인하라거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인격권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정보 또한 보호받는다든 일반적인 설시에 해당한다.

(4)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제8조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언론 및 출판의 권리 또한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의 실천은 다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토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서』 15쪽에서 “혐오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혐오를 외부로 표출하여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에게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유·무형의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혐오발언과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²⁾ 이 조항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또한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과,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의 2016년 상반기 신입생 환영 현수막은 전반으로 찢어진 극적인 모습으로 방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는 성소수자 동아리에 대한 배척과 혐오의 메시지를 전시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증오범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 권리의 실천이 “다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토대로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³⁾ 이 단서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종종 사회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왔기 때문이다.

3.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

(1)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의 입장

2) 최근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혐오표현’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진행됐다. 자유와인권연구소와 애드보킷코리아가 공동주관한 인권세미나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로 2017년 4월 14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에 대한 것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9450/20170419/표현의-자유-주장하면서...-동성애-혐오표현-은-안-된다.htm>, 2017.4.30. 검색.

3)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이 공적 광장에서 자유롭게 들어가 논의하되, 공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지 기독교적 관점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논의는 Os Guinness, “예의를 위한 변론: 우리의 미래가 예의에 달려 있는 이유”, *Socrates in the City: Conversations on "Life, God, and Other Small Topics"* 「도시의 소크라테스」, Eric Metaxas(ed), 박명수 역, 새물결플러스, 2015, 413-449면.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 는 반대 대자보를 게시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1) '동성애 독재' 의 문제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각자가 가진 양심, 신앙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 범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적교섭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 다수의 도덕적 판단은 부정적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20여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학의 가이드라인은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의사,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각자의 신앙, 양심, 학문적 소신에 따라 표현하는 행위를 모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권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고 단속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이든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여 자유를 유린했던 나치의 파시즘 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법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애 파시즘', '동성애 독재' 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제정 절차상의 정당성 결여

총학의 가이드라인안은 적용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및 대학교와 그 산하기구들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에게 적용되는 교내 규정은 적어도 정관 혹은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관 제43조 소정의 학칙 제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총학에 넘겨준 서울대학교(인권센터)의 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려는 인권가이드라인이 학생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인 양 은근슬쩍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3) 실질적 민주성을 상실한 규범

4) 대자보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부분 발췌함.

선천성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선천성은 2000년대 이후 일관되게 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 특히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압도적 원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성애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학생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압도적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실질적 민주성을 현저히 상실한 규범입니다.

(2)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 협의회 의 입장

2016년 9월 28일 저녁 서울대에서는 “동성애와 한국사회”란 주제로 ‘베리타스 포럼’이 열렸다. 법적인 부분과 관계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부당성과 삭제 필요성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그 내용이 차별금지법과 똑같다”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 및 위법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제정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수많은 위헌적, 위법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을 혐오폭력 증오범죄,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해 금지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억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반대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동성애 독재’에 해당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⁵⁾

김승규 변호사는 “동성애를 비롯한 개인의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비판 및 반대 금지와 종교와 사상 및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들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와 종교,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역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가 ‘인권’임을 전제로 차별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동성애=인권’ 주장의 비논리성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자연권성과 평등성, 보편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3)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의 입장

5)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692>. 2017.4.30 검색.

6)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685>. 2017.4.30 검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2016년 10월 27일 발표하였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서울대 총학생회가 만든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2조 “평등권”에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제20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 보면, 구성원의 교육, 징계심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압력과 징계를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 살롬나비는 학생들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가운데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동성애는 인간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인간의 종족 보존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학문적인 논의나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학내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하는 것이다. 동성애 가이드라인 제정은 소수의 왜곡된 권리 향유를 위하여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성애와 관련한 일체의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적인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4.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들의 인식과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언

2016년 9월 서울대에 재학하고 있는 기독교학생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예상 학생이 학부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학생 9명을 만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연구 발표한 자료들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들을 소개한다.⁸⁾

(1)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들의 인식

동성애를 단순히 죄로 규정해야 할지, 아니면 인권으로 보장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기독교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졌다.

- 동성애는 죄지만, 다른 죄보다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7)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4543/20161028/%EB%8F%99%EC%84%B1%EC%95%A0-%EC%98%B9%ED%98%B8%EB%82%98%EB%8A%94-%EC%84%9C%EC%9A%B8%EB%8C%80-%EC%9D%B8%EA%B6%8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A0%9C%EC%A0%95-%EB%B0%98%EB%8C%80.htm>. 2017.4.30 검색.

8) http://www.snuca.org/?mid=free&page=4&document_srl=93119. 2017.4.30 검색.

- 동성애는 심각한 죄악으로 절대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 동성애를 단순히 죄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죄에 대해서, 특별히 탐욕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다른 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기독 학생들의 인식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독 학생들이 한국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보이는 대처에 대해 긍정하기보다는 교회가 지나치게 동성애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음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동성애를 다른 죄악보다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독학생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동성애를 단순히 죄라고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기독 학생도 있었다. 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형태에서 죄의 기준은 사랑의 대상이 동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타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죄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성애 역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 생각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터인데, 언제나 열린 마인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국한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동성애를 단순히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응답을 한 기독 학생들은 죄라는 것이 동성애라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사랑함에 있어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시켜줄 대상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상황이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에 미친 요인은 그들의 성경관과 관련되어 있다.

“저는 성경의 무오설을 믿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죄의 본질을 밀어 주장했던 것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독학생들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보다는 대체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기독학생들의 반응은 3가지로 나뉘어졌다.

- 거리낌이 들지만 사랑해야하는 대상,
- 세계관이 달라 이해하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대상,
-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시민(우세한 입장)

응답자 A는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개인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측이든, 거부하는 측이든 서로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에게 기독교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차근차근히 알려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동성애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기독교학생들 사이에서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학생들은 동성애자를 일반시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들이 이질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동감해요. 그렇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만 동성애를 규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라는 게 그러니깐 내적으로 좋아하는 것일 뿐인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적인 언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의 개인이자 인권을 가진 나와 동등한 시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부인권을 가지기 때문.”

“성소수자 중에서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기에 한 번에 정의내릴 수 있는 표현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더욱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그들과 대화한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동성애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견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는 동성애가 매우 심각한 죄로, 퍼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태도보다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해야 하는데 동성애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보듬어 줘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처럼 뭐랄까.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전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감추고 사랑만 강조하는데.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나 지혜로운 대처 필요. 청년들도 앞장서야 한다.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하니

청년의 공감을 잘 못 사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한국교회가 유독 동성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불편하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할 필요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교회에서 동성애만을 꼬집어서 최악시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호의적이다 보니까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유독 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동성애에만 반응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반강제적 전도 즉 거의 세뇌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성소수자를 향한 교회의 대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응답자 E는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근거로 주로 사용하는 논리인 동성애와 AIDS사이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에서 당위적인 명제를 끌어오려고 하는 잘못이라 지적하였다. 응답자 E는 동성애가 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3)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총학생회의 방식에 대한 입장

지나치게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학내 다른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응답자들은 대개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있어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인식을 표하였다.⁹⁾ 그 뿐만 아니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지나치게 동성애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과연 총학생회가 학생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는 기구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막 죄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인권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진짜 자유롭고 차별이 없다가 보다는 이번에는 너희가 입을 닫으라는 것 같이 느껴져요. 모두가 자유롭고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 평등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

“서울대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심혈을 기울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특히 큐이즈

9)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 주요섭 목사는 캠퍼스 동성애 문제에 대학생과 선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2017년 3월 30일 발표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8850>. 2017.4.30 검색.

회원들과 함께 기독인예배 자리에서 피켓운동을 한 것은 학내 대표로서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했음.”

반면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상당히 있었다. 인권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의 권리는 당연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정한 규정이 학내구성원들을 제약하는 강력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학내의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독교 측에서 문제 삼는 조항을 주욱 봤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조항들이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동성애자임에도, 전과자임에도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인 혐오감을 표출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 혐오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에 재학 중인 기독인 학생들은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인 혐오감을 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동성애가 다른 죄악들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동성애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동성애자들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기독 학생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었다.

기독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서울대 학부를 다니고 있는 기독학생들은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본 조사는 보여주었다. 기독 학생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추락과 맞물리는 대립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동성애자 인권보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있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학내 구성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논의와 사고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가에서 이러한 차이는 단지 혐오나 공포증이라는 명명되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5. 캠퍼스의 상황

(1) 비기독교대학에서 교수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의 저항

2016년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 (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 라는 발언을 했으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출신의 강사다. 또 다른 수업 수강생인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태희 변호사가 쓴 글이나 동영상 한 번 보고, 리포트를 동성애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발언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강사의 수업을 견딜 수 없다는 한 학생의 제보에 지난 일주일간 학생회, 동아리, 학내 단체 등이 연이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일동’ 명의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단대 학생회 10여 곳, 한국외대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중앙사회과학동아리 이퀄리버티,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노동자연대 외대모임, 외대학생행진, 정의당 외대학생위원회 등이 연명한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진상 조사, 진상이 밝혀질 시 강사의 공개 사과, 해당 강의의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학생 10여 명은 해당 강의실에 찾아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강사의 발언이 수업과는 하등 관계없는 부적절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판단했다. 그리고 공동 성명서 배포 활동에 동참한 학생들은 강사에게 즉석 면담을 요청했다. 강사는 그런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인터넷 강의에서 잠깐 들은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발언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까”라며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르다”, “자신의 에이즈 관련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냐”,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면 치유 상담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동성애 혐오 발언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강사의 모습에 “그런 의도(차별·혐오)가 아니라면서 사실도 아닌 ‘에이즈’를 근거 삼은 저의가 뭐냐”, “혐오와 차별에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강단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노했다. 강사는 수강 학생들에게 “사실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아직 용납돼선 안될 부분”,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고 해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 드리겠지만”, “개인적 양심으로는”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다시 한 번 강단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낸 강사에게 “교수는 개인이 아니라 교육자다”, “왜곡된 사실에 기반해 개인의 생각이라고 포장하지 말라”, “차별과 억압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며 항의했다. 강사는 학생들의 온당한 항의에 못 이겨 결국 수업을 휴강하고 교실에서 도망치듯 나갔다.¹⁰⁾

(2) 동성애 동아리 연합단체들의 활동과 기독교 동아리 활동의 위축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이 지난해 말 이 학교 제28대 총학생회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세대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의 회원이었다. 이 컴투게더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며 “퀴어가 이상한 것이 아닌 시대, 지금은 그런 시대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¹¹⁾ 서울대도 지난 2015년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밝히

10) <http://wspaper.org/article/17246>. 2017.4.30 검색.

11) 대학생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대학총학생회, 그리고 학생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2017년 4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요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9559/20170422/대학생-동성애자-연합-대선-후보들에-성소수자-인권-주장.htm>. 2017.4.30 검색.

학생을 총학생회장으로 뽑았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계원예술대학교에선 얼마 전 동성애를 옹호하는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관련 동아리들도 늘고 있다. 기독교 계열 일반대학은 물론 신학대학교까지 예외가 아니다. 연세대 컴투게더는 1995년 생긴 우리나라 최초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다. 이화여대에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가, 숭실대에는 'SSU LGBT'가 있다. 총신대에선 '깡충깡충' 한신대에선 '고발자'가 활동한다. 급기야 이런 대학들이 모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모임 3곳을 포함해 54개 대학, 59개 단체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동아리들은 캠퍼스에서 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현수막과 대자보 등으로 현실을 알리고, 세미나나 각종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인식 바꾸기에 나서는 식이다.¹²⁾

현재 서울대의 'QIS(Queer in SNU)'와 '큐이즈', 연세대의 '컴투게더',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 이화여대의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중앙대의 '레인보우피쉬', 부산대의 'QIP', 한국외대의 '큐사디아' 등 각 대학 동성애 동아리들은 학교로부터 정식 동아리로 인준받아 활동하고 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 · Queer University)'는 전국 27개 대학의 29개 동성애 동아리가 연합해 만든 단체이다. 특히 이화여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가을 레즈비언 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화여대 신학대학원과 여성신학연구소는 지난 9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초청해 '성소수자와 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본주의적 철학과 가치관이 해외 유학과 교수들과 강사들을 통해 대학가를 점령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동성애자들이 캠퍼스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¹³⁾

6. 나가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 라인의 내용 중 동성애에 관한 부분과 또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대 캠퍼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서울대 기독교대학생의 동성애 인식 연구 결과들과 기타 대학교들의 동성애 문화적인 상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권가이드 라인에 대해 비판하는 기성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일반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서울대 캠퍼스의 기독교 대학생들의 인식은 비판 일변도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성인답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캠퍼스의 상황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동성애적 주장을 차별과 혐오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연세대 내 기독교 동아리의 한 간사는 "단순히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서,

12)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6681/20170119/대학으로-파고든-동성애-식어가는-기독교-동아리.htm>. 2017.4.30 검색.

13)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61> 2017.4.30 검색.

그들과 소통하고 여러 관련 이슈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캠퍼스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그것이 하나의 큰 문화로 형성된다면, 그 부분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다는 한 졸업생은 “요즘 기독교 자체의 입지가 매우 좋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독교 동아리들이 학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나름 목소리를 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동아리라는 게 본래 학내 정치적 입지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수도 없고, 그럴만한 정치적 역량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그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입지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는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옹호·지지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대학 캠퍼스를 방치한 채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펴다간 그 동력이 급속히 떨어져 끝내 벽에 부딪칠 것이 뻔하다”며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할 전문 단체를 구성해 대학생 및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등 다양한 반동성애 단체들이 있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펼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¹⁴⁾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캠퍼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교계가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저지했던 대응 방식만으로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주요 구성원인 대학 캠퍼스라는 다원적인 상황은 항상 열린 대화라는 창구를 통해서 담론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대학생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동성애자들 조차 설득될 수 있는 수준의 기독교 변증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¹⁵⁾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6681/20170119/대학으로-파고든-동성애-식어가는-기독교-동아리.htm> 2017.4.30 검색.

15)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인이 된 한 동성애 인권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동성애 운동가가 하 루는 뉴욕의 아주 큰 재단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신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귀를 기울여, 그것도 조용하면서도 사랑스럽게 자신의 말을 들어준 그 사람이 바로 릭 워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98%A4%EC%8A%A4-%EA%B8%B0%EB%8B%88%EC%8A%A4-59617.html>. 2017.4.30 검색. 이외에도 레즈비언·페미니스트 女교수가 어떻게 기독교로 회심하게되었는지에 대한 감동적 일화를 소개한 책은 Rosaria Butterfield, *The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 an English professor's journey into Christian faith* 「뜻밖의 회심」, 오세원 역, 아바서원, 2014.